광주 특급호텔 유치 재점화…'5성급' 탄생할까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자
신라·하얏트·메리어트 등과 협의
신세계는 자체 브랜드 운영 가능성

광주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함께 입점할 4·5성급 호텔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광주에는 5성급 호텔이 전무한 데다가 국제행사나 각종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행사를 소화할 대규모 숙박시설 부족이 해마다 지적돼 신규 호텔이 이러한 수요를 얼마나 해소할지 주목된다.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사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PFV는 호텔신라, 하얏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호텔 운영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현대 서울 1.5배 규모의 더현대 광주가 입점할 전일방 부지에는 4천300여 세대의 아파트와 300실 규모의 호텔이 함께 건립될 예정이다.

더현대 광주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주상복합과 일반 상가 시설은 챔피언스시티 PFV가 각각 개발하며 전문 회사에 호텔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신세계는 아직 호텔 브랜드를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운영 중인 호텔 오노마(4성급)나 조선호텔앤리조트(5성급) 중 한 곳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구 규모와 수익성 등을 볼 때 5성급 유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는 그동안 전일방 부지 개발 사업자와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는 광주신세계 측에 특급호텔 건립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2014년까지 관광호텔업 등급을 분류할 때 사용해오던 특급호텔은 특1급과 특2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2015년부터 도입된 별 등급제에 대입하면 5성과 4성급을 통칭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5성급 호텔은 3개 이상 레스토랑·연회장·국제회의장을 갖추고 24시간 룸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4성급은 2개 이상 시설과 12시간 이상 룸서비스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실제 전일방 부지 사업자는 특급호텔 건립을 약속했으나 5성급이라고 공표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광주신세계 측은 사업성을 이유로 5성급 유치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입점이 논의되는 호텔 체인들의 국내외 사업 방향도 5성급보다는 3~4성급 확장에 집중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5성급인 서울신라호텔과 제주신라호텔만 직영 중이고 5성급인 신라모노그램과 3성급인 신라스테이는 위탁 운영 형태로 하며 국내 사업장을 늘리는 추세다.

하얏트와 메리어트도 아시아에서 4성급을 중심으로 신규 호텔을 늘리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1일 "광주 신규 호텔 추진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하얏트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현재 서울·부산·인천·제주·강릉에만 5성급 호텔이 있다. 광주에는 4성급 3개·3성급 4개·2성급 4개 등 총 15개의 관광호텔이 등록돼 있다. /연합뉴스

텅 빈 시금치 매대 기록적 폭염과 폭우로 농축산물 생육 부진이 이어지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시금치 가격은 수급 부진으로 인해 전월 대비 171.6% 상승했다. 21일 서울 시내 한 마트 시금치 매대가 가격표만 놓인 채 비어 있다. /연합뉴스

밥상 수산물 가격 고공행진…고등어 작년比 28%↑

중·대형어 위판량 생산량 감소 탓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고등어와 갈치, 조기 등 수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등어(신선 냉장·1마리)의 소비자가격은 4천380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8.4% 높았다. 이는 한 달 전보다 3.6% 떨어진 가격이지만 평년보다 17.9% 비싼 수준이다.

고등어는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 작년 동기 대비 1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물 물가는 전달(7.4%)과 비슷한 7.3% 올라 전체 물가를 견인했다.

고등어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어(마리당 300g 이상)의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고등어 누적 생산량은 지난 달까지 7만7천523t(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8% 많았다.

그러나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고등어 중에서 중·대형어의 비중은 1.0%로 작년(12.8%)보다 대폭 낮았다. 이는 최근 5개년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된 중·대형어 고등어 비중은 2019년 53.2%, 2020년 49.5%, 2021년 25.3%, 2022년 51.3% 등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해오다 2023년 9.0%까지 낮아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중·대형어 생산량이 부진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어군이 분산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밥상 수산물인 갈치(신선 냉장) 가격은 지난달 기준 한 마리에 6천383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5% 높은 수준이다.

참조기도 지난달 금어기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고 대형소매점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지난달 기준 참조기 한 마리 가격은 2천143원으로 작년보다 30.1%, 평년보다 9.8% 각각 높았다. /연합뉴스

aT,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참여업체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aT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업체가 급변하는 무역 환경과 글로벌 정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수출기업이 희망하는 대상 국가와 품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신청 대상 국가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은 물론, UAE·프랑스·멕시코 등 중동과 유럽, 중남미의 유망 시장까지 총 39개국에 이른다.

선정된 업체에는 희망 품목에 맞는 시장 규모, 유통채널, 소비 트렌드, 통관·검역, 경쟁제품·기업 등 주요 항목을 다각도로 분석한 맞춤형 보고서를 제공한다.

사업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2025년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사업 추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안태호 기자

광주전남대한건설협회, 중대재해 근절 특별교육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건설안전 규제 및 처벌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회원사의 안전의식 고취와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광 대한건설협회 부장이 중대재해 관련 정부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태근 안전보건공단 경영교육센터 과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현장 안전조치사항과 주요 사고원인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강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는 해당자료를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례집 제작,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